

지난 17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입학부정등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뽑고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93학년도부터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수능능력 시험과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94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 새대학 입시에서 본고사를 치르기로 결정한 대학도 가능한 본고사를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오랜 연구검토를 거쳐 스스로 확정한 새대학입시제도의 골격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일간지의 해설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94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 대학입시제도가 수험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본고사가 대학별도 시행됨에 따라 입학부정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적지 않은 대학이 처음에는 본고사를 치르기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치르지 않기로 함으로써 본고사를 치르기로 결정한 대학수는 점점 줄어들어 현재까지도 대학별 본고사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수는 26개교로 전세대학수(전문대학제 외)의 약 23%를 점하고 있다.

입 수험생들이 크게 두갈래로 나누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학별 본고사를 치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집단과 대학별 본고사를 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집단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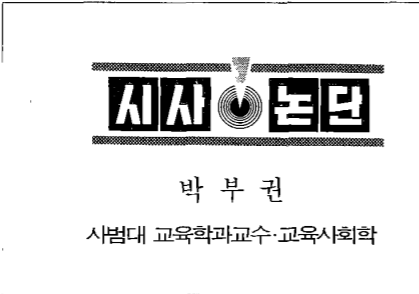
따라서 특정 대학이 자신의 대학에 지원하자는 지원자의 모집단을 전자로 본다면 본고사를 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고사를 치는 대학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은 입시에 임박하여 본

고사를 치지 않는 대학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과 실용 중위권 대학에서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이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든간에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계속 고집하는 대학

본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대학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교육적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입시제도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누구를 선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발 할 것인가 라면 그것의 교육적 의미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대학 입시제도가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이다.

대학 입시제도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고 있는 심각한 영향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험생들이 이중 삼중의 입시부담을 느끼며, 일선학교가 대입제도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은 형식논리만으로 보면 일견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일선학교의 이러한 불행에서 그들의 무사안일과 변화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본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온 만큼 노력하고, 권위의 노력을 기울일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개혁이나 변화를 통하여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시부정을 유발할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해야 할 이유로는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새대학 입시가 합의하고 있는 대학의 자원은 한국의 대학이 제자리를 찾고,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기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며 그것은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줄이는 일과 입시부정을 유발 할 소지를 없애는 일보다 결코 덜 중요한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거창한 교육적 이상을 내세우기 보다는 비리와 부정을 척결하는 사안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정의 원칙을 백내대개이어야 할 교육의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본고사의 실시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 후의 가야할 중요한 가치라던 민의의 하나로 그 인하여 부정입학이 생기고 고등학교 교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우리의 기본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본다.



박 부 권
시범대 교육학박과교수·교육사회학



본고사 실시여부 대학자율에 맡겨야

대입정책의 문제점

고사를 치지 않는 대학으로 목표대학을 변경하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고사를 치지 않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했던 수험생들은 입시에 임박하여 실력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고사를 치는 대학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본고사를 치지 않는 대학이 소수의 대학이라고 있고, 그 대학이 특히 사회적 평판도가 높은 세칭 일류대학일 경우에는 몇몇 수험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의 1차목표는 본고사를 치는 대학일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반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의 기준과 특정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즉 특정대학이 현재와 같은 고등학교 내신평가나 수능능력 시험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학문에 대한 헌신도, 지도력, 자신감, 타인에 대한 고려, 정서적 성숙도, 장애에 대한 돌파력, 공부습관, 과제해결력, 동기, 지적호기심, 추진력, 창의력, 표현력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알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독자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과목 시험도 마찬가지다. 수능능력 시험이나 내신평가만으로는 예컨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능력, 추리력, 분석력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 또한 자체적으로 수능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학별 본고사 실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특히 고민했던 사항은 다음 두가지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본고사의 실시 여부보다 뛰어난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본고사 문제를 스스로 출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대학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출제-제정사정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대학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처음부터 본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것은 두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중위권 대학들이 본고사 실시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다른대학이 본고사를 치르거나 치르지 않는가에 촉각을 세웠던 것은 대학의 명예(?)와 자존심(?) 관련되어 부연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본고사를 실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지원하는 학생들의 질에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대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환경을 떠나서는 감지도 살 수 없다. 이런 환경이 급속한 기술개발로 빛나는 전부터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서구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을 앞세워 자연과 함께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적 삶을 이룩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결성돼 앞으로 환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관에서 열리는 제1기 환경전문강좌는 환경에 대한 이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학습하여 환경문제의 본질과 이후 전망에 대해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련된 개

제1부 환경위기의 전지구적 국제관계에서 황씨는 현재 진행중인 환경위기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강의의 시작했다.

첫번째, 북반구의 오존층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점. 두번째, 매일 1백 40종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는 점. 세번째,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 네번째, 메

◇ 환경운동연합주최 제1기 환경전문강좌

선진국들 환경문제 후진국으로 이전 고갈된 자연 되살리려는 노력 필요

년 지구 전체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 다섯번째, 매년 1천7백만 헥타르의 삼림이 사라지고 있는 점. 여섯번째 세계인구의 증가. 대수가 개발도상국에 몰려있다는 점.

이어 황씨는 '50년대 서구의 경제 회복으로 후진국과의 교역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후진국은 채무가 늘어 결국은 국제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70년대말 고전적인 남북 분명구조가 생태학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밝혔다.

우선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제국주의 제1단계를 후진국의 채무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후진국의 선진국 기술도입에 원자재 수출을 감행하는 모습에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 국제금리의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연속 속에 후진국의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선진국의 재정적자로 후진국은 더욱더 원자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제2단계로는 선진국은 후진국의 채무불이행을 빌미로 정치적 주권을 양도받고 있다. 즉, 일정한 영토의 지역을 원자재 개발금지구역으로 놓아줄 경우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제의를 하는 형태이다.

제3단계로는 선진국 국민들의 높아진 환경의식문제를 우회시키기 위해 모든 생산기반을 후진국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 맹독성폐기물 등을 후진국의 일경지역으로 매립, 소각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례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약품으로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사망인구는 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황씨는 "선진국이 중화학공업의 팽창으로 더욱 심각해진 산업폐기물들을 다른 후진국에 넘기지 않고 어떻게 자체내에서 해결할 것인가"로 들고있다. "환경문제를 극복하려는 모델 또한 논의의 대상인 가운데 선진국들은 이론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술로 환경문제를 치유된다"면서 선진국의 자세를 비난했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립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녹색당과 보수파들은 각기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술자에 대해 적대적인 녹색당은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기본 전략을 내걸고 작은 규모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수파는 환경위기의 근본원인을 기술난후로 규정하고 기술에 대한 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시장 및 시장요인이 자연보존과 원자재 절약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생태학적 케인즈주의는 한때 큰 인기를 얻으며 성장해왔다고 황씨는 밝히며 "하지만 이론과 실천에 따른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오류는 첫째 환경문제를 사소한 일로 규정하는 점. 두번째 모든 산업을 같은 기준에 맞춘 점. 세번째 산업폐기물배출량 규제를 따라 국가별 인정을 내린다는 점. 네번째 국가를 가장 믿을 수 있는 환경 조종자로 규정하는 점. 다섯번째 환경마크를 상대화시키지 못한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파괴된 환경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의식을 서로서로가 공유할 때만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황씨는 결론을 지었다. 환경위기의 최대과제를 갖고 있는 현 상태에서 자연의 고갈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환경단체들의 운동이 더욱 필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위기를 깨닫게 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관식 기자>

사설

주인없는 동국중흥

구체적인 일정과 기획발표가 있는 지 열흘도 되지않아 동국중흥한마당 행사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 15일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의 논의속에서 학교측은 동국중흥한마당에 대한 적극적인 개최의지를 표하고 있지 않다. 학내인문사회의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측은 일정정도 학교측과의 협의를 가지고 개최합의에 접근한 듯한 답변을 했으나 학교측 대드는 학생주치의 학생들의 행사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체 준비기획조차 제대로 준비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중흥한마당에 대한 어떠한 선진도 사업의 구체화도 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총학생회의 의견개진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학생들의 기대가 '동국중흥한마당'을 추진해야 하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견개진을 통해 학생들은 동국중흥한마당에 참여하겠다고 78%(1천3백명)가 답하고 있다. 또한 참가비용에 대해서도 64%(1천1백69명)가 본교와 관계있는 학교, 동문, 불교계,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

위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으며 동국중흥한마당에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더군다나 동국중흥한마당을 치위내면서 교수, 직원, 학생 세 주체들의 단결이 꼭 필요하다고 84%(1천5백45명)가 답해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준비과정에서의 화합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바람은 지극히 당연하다. 동국중흥한마당의 계획이 학교 발전이고 여기에 단결과 화합은 필수 요건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 당국의 수동적 태도는 이 모든 것을 불안하게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단순회 학교발전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가 마저도 그렇다. 오히려 학교당국이 나서서 개최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해 10월 중앙대는 재단의 비리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학교발전을 위한 '범중양인한마당'을 개최했다. 물론 학교측의 주도적인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래도 소속감이 덜 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결국 마찬가지다. 지금 총학생회에서 총동창회나 민주동문회, 교수회, 직원노조 등과 계속 접촉하고 있기는 하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한가지 학교 당국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번 행사를 커다란 대의명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일정 임정차이가 존재하는 모양이다. 학교 재정이 학생회측이 제기한 행사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는 듯하다.

결국 동국중흥한마당은 총학생회가 제기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행사가 아니다. 친체된 동국을 살리는 전기를 만들어보자는 행사이지만 때때로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좀더 큰 아람으로 학교측이 이번 행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학교발전만을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기에 함께 고민해도 좋을 것이다. 아직 학내에 동국중흥한마당을 알리는 선전물 하나 볼 수 없어 못마땅하다. 동국중흥한마당같은 행사가 학교·학생의 공조 체계로 도출되자 하지 않고 민족 동국의 부활의 강으로 기획되어 큰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東國漫評

김상남



<김관식 기자>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회장과 대화)

신입사원들을 조금 경령자로 인정하고 경령방침은 물론 회장의 개인 신상에 이르기까지 회장 자신이 직접 대담에 임하는 회장과의 대화. 75년부터 신입사원 연수의 한 과정으로 시작되어 이 프로그램은 회장과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허심탄회하고 진실한 대화의 장으로 신입사원들의 일체감을 제고시키는 선경인의 독특한 기업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회장님께서 직접 서주실 수 있으신지요?”



유익사원들과 신입사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최영인 회장

신입사원과 회장의 진솔한 만남의 장(場) — 회장과의 대화

아차간 기습에 자리잡은 선경 연수원 101호. 직경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선경인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회장과의 대화. 바로 뜻내기 신입사원들이 경영의 대선배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동일한 대비한 그를 차원의 경령전략. 올바른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한 방안. 6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이 시간에는 중역들의 경령회의에서나 나올법한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만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나온 이들의 당찬 질문입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직접 서주실 수 있으신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가장으로서의 권수는 벗어놓고 생각하십니까?”
이쯤되면 거침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간 회장도 어려운 시험문제를 받아든 학생처럼 난감해 하지만 이내 웃음 띤 얼굴로 질문에 응하는 모습은 정경에만 느껴집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가와 말문을 열게 만들어 감시의 휴식마저 빼앗아가는 신입사원들. 이들을 볼 때마다 기업 경영의 새 활력을 찾게 된다며 가까이 대해주는 회장의 모습에서 신입사원들은 믿음직한 선배 경영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SUNKYONG
鮮京그룹

◇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보는 친일파 문제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사회 기득권층 계보

친일세력 잔재 제거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해결을

한 상 범

(법대 대학법과 교수·한림)

요즘 출판계에서 들배개출판사가 펴낸 반민족문제연구소가 엮은 '친일파 99인'이란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젊은 독자들에게는 학교에서 이제까지 교과서를 통해 진술한 이 나라의 당당한 선각자이고 명사라고 배워온 이광수, 최린, 주요한, 김원준, 모윤숙, 서정주, 최남선, 정병석, 백철... 등이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파 반민족자들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고 흥미도 있기 때문이다.

젊은 사회에 뿌리를 깊게 박은 중년의 기성세대나 노년층도 해방후부터 친일파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경제와 권력, 경제계와 문화계, 대학과 각종 교육기관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진실에 직면하지 못한채 바보가 되는 우민교육을 받았던 이유로 자기가 평소 존경하던 인사가 친일파라고 지목된 것을 보고 일대 충격을 받고 있다.

"과거의 선각자가 지금은 반역자"

그래서 친일파 문제를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다. 얼마전 안동회를 주축해 김구선생을 암살한 배후 세력이 친일파라고 하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친일파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시정의 서민대중으로서도 울산 대곡역적으로 꼽히는 이완용의 손자가 그 친일파라고 영화를 누리던 재산을 찾았다고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그 재산이 수백,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나자 친일파와 대곡노들의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정의 서민으로 또 한번 깜짝 놀란것은 그런 부정한 친일파의 자나 그 자손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커닝 그것은 사소유권으로서 법으로 보정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무슨 법이 그 모양이나"고 화를 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터 우리는 친일파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바로 현재 우리 자신의 정치와 경제의 문제이고 문화·교육의 문제이고 민족정기의 타락의 문제이고 사회모순의 근원에 도사린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바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왜 친일파 반민족

역사의 문제가 그대로 덮어둔 채 있어 왔고 그렇게 잘못되도록 방치되어 왔는가. 바로 이 문제 자체에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인 기득권층의 문제가 있다.

이완용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멸망해 조진이 일제의 식민지가 될때 이완용이 일부 양반지배층은 일제에 투항하고 타협하며 굴복함으로써 그를 편이 되어서 지위와 재산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주가 되고 매관지배자가 되고 관료가 되고 지식인이 되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이들 친일 세력은 미군정에 투항해 사소유권제를 기반으로 해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미국군정의 편이 되어서 관료와 유지로 변신했다.

이승만은 바로 그러한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했다. 이승만정권의 요인은 압도적으로 친일파 유지와 일제관료·경찰관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의 연명체제'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다. 특히 일본 제국의 기존체제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법령체제를 골격으로 하던 미군정 체제를 계승했기 때문에 물적인 면에

서도 친일적 식민주의의 잔재는 그대로 인적 잔재와 함께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군사정권이 5·16쿠데타(1961)로 들어서고도 박정희 자신이 일본 제국의 관동군 산하의 식민지 용병부대인 만주군출신이었다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일정권이었다.

그러서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고 하는 서술은 잘못이다. 오히려 일본 제국의 식민지 용병부대인 만주군출신이었다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일정권이었다.

그들이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고 하는 서술은 잘못이다. 오히려 일본 제국의 식민지 용병부대인 만주군출신이었다기 때문에 철저하게 친일정권이었다.

그들은 세상이 변동될 때 마다 이완용에 대한 충성을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고 일본천황에서 미군정군과 반공주의로 충성을 탈바꿈해 하루 아침에 반공투사가 되고 이승만정권의 건국공로자가 되었으며 이승만이 몰락하자 민주투사로 위장을 하고 박정희가 정권을 틀어잡자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되어서 자기 자기배만을 다져 오면서 막을 있었다.

그 책은 아직도 거의 존재하고

爲者 財産沒



◇ 지난 2월4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있었던 '미국노 이완용 등 반민족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제정 백만인 서명운동'의 모습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총체주의와 시세권 승주의로 강한 눈에게 빌붙어야 살아남는다는 윤리부재의 노예적 처신으로 사람을 몰고갔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지배층의 유례 없는 파멸적인 부정 축재의 행태는 사회의 윤리강령을 아주 망가뜨려 버렸다.

그야말로 도둑놈의 판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의 살아남을 자구책을 강구하자고 하면 정권변경이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심판이 없는 역사의 공백을 메꾸는 일대 정권적일과 사회 개혁을 위한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친일의 계보와 그것이 오늘날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따지자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결코 과거의 흘러간 일이 아니라 오늘의 바의 일로 알고 고쳐야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 일제시대 정권과 학벌을 나가지고 하던 자가 교육인으로 행세하고 무능·어용의 사이버 교원이 민주인사로 둔갑을 해서 이 나라와 사회를 망치는 기막힌 일을 하고 우리가 노예의 사슬을 스스로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를 무질세로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새삼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악습과 관료로부터 몇가지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경찰이 장립될 때 일제 하에서 고등 경찰이라고 하는 가장 악랄한 정치경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독립운동자와 사회운동자를 고문하고 전향을 강요하며 민족을 배반

이러한 유산이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당구기꾼과 뇌물도둑이 지도자로 행세하고 사기꾼이 교육자의 탈을 쓰고 교육의 현장에서 무능한 비겁자가 교수행세를 하게 되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어디에서부터 연유하는가를 똑똑히 가려내야 한다.

사회개혁과 민주화의 작업이 친일 제국주의의 잔재의 청산이라고 하는 사회모순의 제거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개혁의 필요성

이러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가 지금도 이 나라에는 버젓하게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제잔재로서 사람의 개인 인격과 자주의 존엄을 말살하고 노예근성을 가지게 하는 잔재는 나라의 의식과 관행이나 권력을 도덕적 우월성을 지닌 권위로 인정해 승복하는 노예근성을 심어 놓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나쁜 것은 모두가 일제잔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반민주적 노예근성의 잔재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천황제 신권주의(天皇制 神權主義)'에서 파생한 권위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예근성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할 수 없다. 지금 우리사회를 가장 병들게 한 것으로는 힘센 권력자에 빌붙어서 자기일신을 보존하고 안일을 도모하고 있는 편승주의와 함께 주권재민의 주인의식을 마비시키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이며 정권의 유지를 위해 반대자를 말살·제거하는 도끼가 방망이로 쓰이는 반공주의의 정치적 악용이다.

책 소개 '친일파 99인'

(들배개출판사·전3권 각권 4천5백원)

현대사 해명의 실마리



◇ 최근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인물에 접근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친일파 99인'

한 일간의 평생가도록 풀리지 못할 미묘한 관계는 최근 국내에서 문제 시되었던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원형 씨의 딸장기 소송으로 인해 다시 불 붙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기라도 한 듯 친일파 반민족역사의 역사적 범죄와 그 청산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인 반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역사속으로그냥 지나쳐간 인물들을 제2명하는 차원에서 '친일파 99인' (들배개출판사·전3권)을 발간했다.

난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권력기만 친일파에 대해 소속되었던 인물들을 설정하는 작업부터 진행되었다.

그후 2백여명을 설정한 후 두가지 기준 1)사회 각 분야의 대표적인 친일인물인물에 대한 여부 2)현실적으로 집필이 가능한 자료의 존재 여부로 1백명내외로 조정된 후 총 대상인물을 99명으로 확정되었다.

역사적 심판의 계기 마련

이 책의 발간은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친일파를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선정하여 친일파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데에 큰 의의를 두며 친일파 잔재세력을 경화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시간에 능히 배워온 인물인 박영호, 김윤식, 윤치호, 윤영명, 박종양, 민원식, 배정자, 정만조, 최남선, 모윤숙, 유지진, 홍난파, 현제명, 권성로등 여러 각계 분야 인물 99명이 이 책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 책을 펴내기 위해 반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1876년에서 1945

들의 이해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해방후 민족사의 최대 과제이며 정치사 근본문제인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내걸고 시작한 이변의 편찬은 분야별 전문연구자 45명이 참여한 과 있어 실질적인 친일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친일파문제를 추상적으로 다루었던 기존의 출판물과는 달리 이 '친일파 99인'은 내용에서부터 친일파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조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회부>

동막로

"요즘 진행중인 4·19혁명 기념 행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예전 같았던 기념행사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보는 느낌이예요"

33년 4·19혁명을 맞아 교내원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념행사를 지켜보면 한 학우의 편찬적인 목소리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학생회는 4·19혁명 기념 행사준비위원회로 선정하여 여러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예년행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어렵게만 보인다.

또한 '4·19기념행사 준비상황에 관한 질문'에 여러 학생회는 '별 준비 없었던 선전대자보 몇장 붙일 예정입니다' 또는 '지형 기간이어서 미처 준비 못했습니' 등 예년과 똑같은 답으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4·19 정신

이러한 학생회의 관례적인 행사준비에 장난이라도 맞추는 듯 한 학우는 "비 마라톤대회는 언제하나? 등반대회 때에는 어디가서 술을 먹을까?" 등의 말을 쉽게 내뱉는 상황이 되고 보면 '4·19혁명 계승'이라는 말 자체가 어

로든 의지를 밝히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대학의 학생회나 학생자들이 4·19기념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나 2백14분의 열명이 아니라도 제대로 감고 있을까?"라는 한 선배의 비통한 한 말씀이 들린다.

매가 되면 의례적으로 준비하는 행사, 집회를 위한 집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일반학우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언론의 모습도 이젠 거추장스럽기만 하다.

모두들 반성의 눈빛으로 33년전에 있었던 반민주 독재정권에 항거한 최초 민주승리였던 4·19혁명을 되새겨야 할때다. 결코 의례적인 행사와 지식적 교훈의 전달이 아닌 가슴깊은 곳에 도도히 흐르는 소리 없는 울분의 침묵으로 말이다.

"불의 독재를 쳐부수리라" 그 정신 그 사랑 지켜라"라고 노래했던 '혁명혁명'의 정신을 온 방울 학우들은 저버리서는 안될 것이다.

<김태성 기자>

국어·영어·수학 강사 연수

"지금!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개인지도 및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의를 원하는 학생
- 현, 개인지도 및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의를 하고 있어도 교수법 향상을 원하는 학생

전공과목과 상관없이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징

- 현재 20년 이상의 강의경험 Know-how 전수
- 교수법 연수후 강의 학생들로부터 100% Appeal(가르치는 것은 최상의 공부방법)
- 연수 후 취업 알선

내용

1. 인기 강사가 되는 법
2. 재미있는 수업진행 방법
3. 하위권 학생 성적 올리는 방법
4. 폐속진도 및 교수법의 다양한 테크닉 훈련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신분은 1개월이면 완성되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3개월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공개강의

- 일시: 93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오후 6시
- 장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상업은행위 영림출판사 부설 집현전 학원

문의전화 ☎ (02)544-8565~6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별 학급편성
- 동영 Level로 구성된 12명정원제
- 엄격한 학사관리
- TESL, 영어교육학, 음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강사진담당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 1-4 매시간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미국 영화배우의 영어발음이 쉽게 들린다?

AFKN 뉴스나 미국영화를 자막없이 영어로 들을 수 있는 학습방법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당일 선착순 150명에게는 AFKN 청취요령이 담긴 과월책자와 Tape를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 326-3100

사역원에서 만드는 **WORLD NEWS** 영어지침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인원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 제대로 시키는 학원에 나기 영어 회화 학습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이라면 외면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투어 불안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인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외워 보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 따라 공부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 129기 수강생모집

- 개강: 1993. 5. 3 (8주)
- 강사진: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일 75분 주 5일
- 강의장: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빌 737-4641 (대)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군·행정병 모집

1. 행정병 주특기 부여 900
2. 매일 단독입영 1~12일
3. 6주 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4. 복학시기 조율
5. 고졸이상(17세~26세)

※ 유사 학원주의

- 사무자동화(OA)병
- 차트(일반행정병)
- 사무타자 행정병

인성학원

732-5346
730-6946~7 (총로 1가 무로수제과2층)

유니버시티 학원
735-2323, 9716 (총로 1가 제일은행본점 옆)

'빠빠' 무선호출기

여가편대 신형당일개통

- 서울 561-8863
- 안양 561-8863
- 서울수도권본부 (0343) 58-1931
- 가야정보통신



낙후된 도서관 치유책 없이 '표류'

구체적인 예산·공간확충방안 강구 못해

장기발전계획 통한 학문요람의 산실 되찾아야

문제는 심각했다. 그러나 빠른 해결방안은 강구되지 못했다. 특히 공간확충 방안과 예산확보 및 책정 등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는 당위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말았다.

지난 20일 도서관 앞에서 열린 도서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는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참석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행됐다.

김보환(경찰행정학) 중앙도서관장 정영길(정치외교학) 기획조정실장 홍영백(사학) 총무처장, 강정순 관내처장, 최순열(국어교육)학생처장 학생대표 이상호(야간 무역4부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올해 도서관 문제 해결사업, 장기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는데 학생 50여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부·연구의 구성인 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과 사업을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긴밀한 토론으로 마련했다는 계획의 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정영길 기획조정실장은 공청회 시작하며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저런가 마련했으며 여기서 논의된 발전방안은 실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참석한 학교당국 보직교수의 입장을 대표했다.

이상호 부총학생회장은 △조명·기하공간 재배치·환경 등 복수요구인 △학생정보센터로서의 역할 △독립·예산편성성과 예산 확충 등 총학생회의 책무내용을 요약하면서 "장기적 사

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학교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로 나누어 각 처·실장들이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김보환 중앙도서관장은 현재 도서관의 해결과제로 △공간부족 △도서관 △생활도 증가 △전산화 등을 지적하면서 "공간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도서관 입 예산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총학의 복지요구안에 대해 강정순 관리처장은 "완공시설은 완료된 상태이며 조영시설은 현재 진행중이고 올해 총계부 분별적 도약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하공간 재배치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은 현재 교수연구실까지 태부족인 상황에서 연구·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며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예산부문에 대해 홍영백 총무처장은 "다른 대학에 비해 열악한 장서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작년 대비 35% 증가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히며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학교당국의 정책적 예산지원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서관 장기계획 발표는 주로 공간확충과 예산편성이 논의의 중심이 됐는데 동국 학술문화관 건립이후에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안이 없다는 게 학교당국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지난 20일 열린 도서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또 총학이 제시한 전면개개 실사, 대출시간연장, 사서확충, 독립에 산별정, 열람실 확충 등의 장기발전 계획안에 대해 학교당국 보직교수들은 "이런 사항은 공간확보와 예산이 결부된 문제이므로 여기서 확장할 내용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공간확보 방안과 예산확보 및 도서관예산확충 계획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정 기획조정실장은 "학술문화관 건립 후 교수회관 공간확충이 가능하며 독립예산편성은 도서관 자체 수입이 있을 때 가능하므로 현실성이 없고 사서의 연구직제 도입은 현재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에 위탁교육과 정보

의 도서관구입비를 신청, 작년 대비 5천여권의 신간도서를 더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전공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에는 주요도서관 이용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도서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각 분야별로 발표된 반면 학생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해 열린 논의의 장은 되지 못했다. 주최측인 총학생회는 도서관 문제에 국한된 공청회였다는 한계와 중간고사기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불상주위 학생들과 지나가는 학생들이 공청회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본관 각 부서 직원들도 공청회에 참여해 학교당국·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학교당국과 학생들의 입장을 경청한 도서관 한 직원은 "구체적인 논의는 못했지만 심각한 도서관 문제에 대해 여러 지적들이 나왔고 오늘 공청회가 이후 예산편성 등 도서관 발전계획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저조한 학생참여에 대해 한 학생은 "총학의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쉽고 학교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는 자리인 만큼 학원회제개선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어야 했다"며 총학의 공청회준비부족을 지적했다.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③ 이과대 민태진 학장

"연구비 확충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당면 최대과제"



대상이다. 화학과를 포함하고 있는 1백16개교중 68교의 화학과가 평가에 임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금은 물리학과가 받았던 평가처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문제이다.

- 최근 국제사회의 나이갈 이과대학의 연구방향은 =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다. 이런 시점에서 본 대학이나 국가전체가 해야 할 일은 지식소유권, 물질특허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무슨 일을 하던간에 교육 기술사용도로 지출되는 돈이 더 많이 드니 하루빨리 한국적인 과학,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수립해야 한다.

- 지금의 화학과의 상황은 = 우수학과로 판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외국대학의 경우 한 과가 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본교의 경우는 대학교육 명목은 지킬 정도로 어느 정도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화학과의 학과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과대의 제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태진(화학) 이과대학장에 발전방안을 들어본다.

1954년 수학과·물리학과·화학·생물학과로 시작된 본교 이과대학의 역사는 55년 과학관 설립, 62년 통계학과 신설, 79년 재료학과 연구소 설치, 과학관 7백19평 증축 등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난 82년 이과대학의 명칭이 확정되어 지금은 화학과·수학과·물리학과·통계학과를 갖추고 있다.

이과대학의 물리학과는 최근 학과평가에서 우수점수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화학과의 학과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과대의 제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태진(화학) 이과대학장에 발전방안을 들어본다.

- 이과대학의 설립취지는 = 본래 문과대학이 중심이었던 본교의 특성상 너무 문과에 치중하는 것 같아 자연계를 신설, 과학 분야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였다.

- 이과대학의 교육목표는 = 지혜와 자비심에 근거를 둔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책임감과 보편성, 창의성, 참담성을 지닌 기초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험교육을 통해 과학진보에 걸친 기초지식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이다.

- 학과평가에 대한 의견은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이 제도를 통해 과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학교육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장의상을 걸어야 한다는 본 대학의 목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년에 항상 두개과가 이 제도를 거치는데 올해는 화학과가

교육을 위해 실제로 학교에서 쓰여지는 연구비의 크기로 학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실적인 노력의 뒤따라야만 발전은 이루어진다. 요즘 대학에선 동국중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실정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를 되새기는 것 밖에는 될 수 없다.

- 학장으로 재임기간중 목표는 = 교육환경개선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구성원들 모두 양심에 맞게 속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일류대학의 길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과별 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매력이다. 학교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구성원 먼저 노력하는 자세를 걸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 학생은 앞으로 공부로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길러 주위 분위기를 학원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 오로지 진리탐구에 정진할 때만이 발전은 이루어진다.

이병민 (본사 기획위원)

(강판식 기자)

학원탐입정책에 내몰린 제적생의 복직 문제

정권의 특혜아닌 학생의 권리회복

6공시기 전국적으로 2천여명 제적

제적생이 학교로 되돌아온다. 6공기 당시 학원민주화와 시국관련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들이 지난 3월(2)일 제적생 복직을 위한 특별조치 발표로 다시 학교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국 제적생복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교육부 항의방문, 복교지시 서명운동, 명동성당 단식농성 등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온 소중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교의 경우 복추위(위원장=김성구·경의 87학번)구성을 통한 제적생들의 복직추진이 활발하다. 학생회활동 및 시국관련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수는 현재 1백10여명에 달하고 있다. 복추위는 특별조치 발표이전부터 복직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접수받아

현재 선별직접을 진행중이다. 학교당국 제적학생 복직심사위원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의 통해 조만간 합의의 사항이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협의의 통해 복추위가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복추위 위: 통해 제적경위서와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자는 전원 이번 학기에 복학한다. △이번 학기에 복학하지 못한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기에 복학가능(예를 들어 수배자는 수배제외후, 구속자는 출감후, 군복무자는 군제대후) △복직대상자는 일정 학기의 등록금면제 혜택 부여 △시국 활동 관련으로 파란된 과목에 한해서 추가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

20일 현재까지 복추위와 학교당국 제적학생 복직심사위원 간 정점을 이루

고 있는 것은 87년이전의 제적생도 이번엔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직심사위원은 "현행학칙에 87년 7월 특별조치에 해당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전에 복학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 조치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다른 대학의 상황을 알아보면 부산 동의대의 경우 학교당국에서 복직을 허용하지만 재입학금과 이번 학기 인상분 등록금까지 모두 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표명을 복추위 학생들이 반발, 총학생회 접기에 들어갔다. 또한 전북산업대, 신구전문대, 신원전문대는 학교당국이 처음부터 복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해 마찰이 예상된다.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종대의 경우 90년 학원민주화투쟁과 관련된 경제제적된 자 5명에 한해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면제를 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특별조치발표를 하면서 각 대학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입장일 명과 함께 복직이 마무리된 후 평가를 통해 학생활동 관련 제적자가 아닌 자를 재입학시킬 경우 대학 자율 처리에 상응하는 엄중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학교당국은 다른 대학의 결정을 예의주시하지만 한편으 아직까지 확고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교육부가 복직허용취지를 더 이상 악용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대학의 자율성부여보다는 실질적인 대학 고유의 자율성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추위는 오는 21일 제적생 완전 복교를 위한 동양인 실천결의대회 를

갖고 제적생의 복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학교당국의 시간강박적 협의를 강하게 내세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공시기 제적된 학생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원민주화와 시국관련사건으로 복직이 미등록제적된 학생들이다. 또한 비교육적인 미등록·학사제적제도에 의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이다.

이와관련 본교 복추위 정책부장을 맡고있는 박혜민(동생·85학번)은 "우리의 복직은 지역이 아닌 것이며 이제까지 우리의 학습권리는 막탈당한 상태였다. 최근의 학사제적제도를 포함, 타의에 의해 교육기회가 박탈당하는 제적제도 자체의 폐지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공기후의 학원민주화 양태는 역대 정권이 학원에 경찰을 상주시키거나 학원시찰등으로 직접적인 탄압이 아닌 재단이나 학교당국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원을 탄압해왔다. 자율성회복이라는 허용속에서 교육단체나 재단을 통한 대외투쟁을 주무기로 삼았던 6공기후는 87년 6월 항쟁이후 정국을 안정화한다는 미명 하에 공안정국을 유지하면서 학원자

관공스님 초청 대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동국의 모든 가족들께 부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증만하시어 하시는 때마다 모두 여의로우시길 불보살님께 축원합니다.

본 정각원에서는 4월을 맞이하여 전 동국인 대상으로 직지사 관공 스님 초청 대법회를 갖고자 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불기 2537(1993)년 4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2. 법사 : 직지사 조실 관공스님
3. 장소 : 정각원 법당

정각원장

동해 낙산학사 이용

강원도 양양군 소재 본교 동해 낙산학사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다 음

1. 이용기간 : 연중 행사 이용
2. 사용자
 - 가) 내부 이용자(교직원 및 재학생)
 - 학생 1인 1박 ₩1,000 (난방비: 1실 ₩3,000)
 - 교직원 1실 1박 ₩7,000 (난방비: 1실 ₩2,000)
 - 나) 외부 이용자(동문 및 외부인): 내부 이용자의 2배
3. 시설규모

구분	숙소		식당	회의실	비고
	학생	교직원			
규모	10실	14실	1	1	
난방일수	3일	7일			심야전기난방
수용능력	120~200명	70명		200명	
3. 사용 신청접수 및 문의 :
 - 서울 = 관재과 후생복지계 (교내: 3083, 3084)
 - 경주 = 학생회(학생), 관재과(교직원)

관리처장

제3회 D·K·B·S 입학기요제

1. 기요제 일정:
 - (1)예선일정: '93. 5. 2 14:00
 - 장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 (2)본선일정: 예선 통과자에 한하여 통보
2. 참가자격: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3. 참가부문: 독창, 중창, 그룹 참가곡은 반드시 자작곡 또는 미발표창작곡에 한함.
4. 참가비: 1명당 10,000원 (조흥은행: 예금주 김지은 온라인번호 976-06-004676)
5. 참가신청접수기간: '93. 4. 1~4. 30까지 접수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7. 구비서류: 참가신청서(사건부과 3×4) 악보 각1부
8. 시상:
 - 대 상-상금 20만원·상패 동 상-상품·상패
 - 금 상-상금 10만원·상패 인기상-상품·상패
 - 은 상-상금 5만원·상패
9. 문의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TEL: (0561) 770-2470
10. 특 례: 입상자는 "포항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
11.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육방송국

편리한 전화 가설 안내

● 동국대학교 학생으로서 현재 전화가 없는 학생, 혹은 전화가 1대 더 필요한 학생에게 전화가설비 250,400원을 분할납부하여 가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화가 필요한 학생은 총학생회(복지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 신청은 추후 을지전화국에서 방문하여 접수 받습니다.

※ 전화신청서 준비물

- 학생증(원본, 사본), 재학증명서
- 전화가설비 1회 분납금: 25,400원
- ※ 전화 가설비 납부 방법
- 분할 납부 기간: 10개월(단축 가능)
- 전화가설비 납부: 매월 사용된 전화요금과 합산하여 납부 (전화요금 납입 청구서에 전화가설비가 될 수 있음)

● 또한 을지전화국에서 현재 보급중인 하이텔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화가설비를 위한 학생에게 임대기로 하였으니 하이텔 단말기가 필요한 학생은 총학생회(복지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이텔 단말기는 을지전화국에서 전화신청 접수 방문시 배부 예정입니다.

※ 하이텔로 검색 가능한 정보

- 증권, 금융, 비독등 420여종의 생활 정보
- 개인간 P.C통신
- 호스트를 이용한 P.C통신
- ※ 하이텔 신청서 준비 서류(전화 가입자에 한하여 단말기 대여함)
- 학생증(원본, 사본), 재학증명서
- 도장
- ※ 요금
- 가입비: 무료
- 단말기 임대료: 무료
- 정보이용료: 월 9,000원

을지전화국

◇대학문화시평 — 편견과 편견의 사회적 해악성

그릇된 편견이 지연·학연을 낳는다

히틀러의 내부불만이 유대인 6백만명 학살 이성은 정신적 영역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임호일 <문과대 독문과 교수>

인간은 원래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성현이나 해탈한 이는 혼자일 때 더욱 완전해 진다고 하지만 우리 내 같은 범속한 인간은 혼자일 때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성현이나 해탈한 이는 혼자일 때 더욱 완전해 진다고 하지만 우리 내 같은 범속한 인간은 혼자일 때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성현이나 해탈한 이는 혼자일 때 더욱 완전해 진다고 하지만 우리 내 같은 범속한 인간은 혼자일 때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타나게 된다. 편견의 정제는 이러한 배타성의 발전된 형태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편견은 인간의 순수한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다.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편견의 속성을 더욱 예리하게 파헤친다. —“편견”의 신봉자

“그릇된 판단이 오류로 드러나고 그 판단의 사실요구가 도처에서 반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달려 계속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편견이라 정의한다”

한 본능의 세계를 넘어선 감정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에곤 바레스(Egon Barres)는 “그릇된 판단이 오류로 드러나고, 그 판단의 사실요구가 도처에서 반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달려 계속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편견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오류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편견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말이 된다. 편견에 빠진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견해를 반박될 위험에 처

들은 자신이 믿는 세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감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믿음을 힘차게 옹호한다. 그리하여 경직된 편견은 광신주의로 빠지고 만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짓고, 배타성도 띠게 된다. 이 단계는 편견 이전의 단계로 아직 사회에 적극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 그런대로 ‘필요’의 범주에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편견의 경지에 이르면 이는 일 개인 내지 한

만되고, 이들을 나락의 심연으로 끌고 갔는가.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엘리트주의도 알고 보면 편견의 산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트주의는 소위 엘리트 그룹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견해 위에서 그 위상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엘리트주의는 이 세상에 천재가 따로 있고 바보가 따로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천재는 천재 및 천재사상을 부정한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고 하면 이 말은 곧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무지를 지적한 말이었고, 독일의 시성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천재 작가 게오르크 뷔히너(Georg Buchner)는 “저는 최소한 이상이나 교육이 빈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누구를 경멸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나 범죄자가 되고 인되는 것이 그 어떤 개인의 힘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몸을 담았다면 우리는 모두 같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위력을 떨치고 있는 엘리트주의도 알고 보면 편견의 산물이다”

모두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담(Gadamer)가 진리의 역사성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 절대진리란 — 종교의 세계는 예외가 되겠지만 — 존재하지 않는다. 베이컨(Bacon)은 그의 ‘우상론’에서 ‘언어가 정신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절대진리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히틀러의 예에서 보았듯이 언어의 폭력이 정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구태여 민 유럽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깝게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앞서 말한 지연, 학연 이외에도 색깔론, 지역감정 등이 진리독점의 무기를 휘두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을 편갈라 적으로

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한다. 설사 엘리트 및 천재가 있다면 치더라도 이는 하늘이 만들어낸 인물이 결코 아니며 다만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말해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 스스로가 믿고 의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상(理想)이 천재요 천재사상인 것이다. 진정한 엘리트 및 천재는 그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간. 그래서 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인간을 두고 일컬어야 할 명칭이 아닐까. 이러한 천재 및 엘리트들이 우리의 손을 이끄는 한 우리 사회에 미친 편견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성흡/아버지의 봄/재료: 한지에 수묵담채/크기: 108x71cm

그림가장 민 주희 '새로운 것' 기획전이 93년 봄 '새시대'에 맞는 위상정립과 아름다운 참 미술의 내용확보의 일환으로 지난 1일까지 열렸다. 이번 기획전은 젊은 작가중심으로 기획되었는데 80년대 이어 여전히 한국현대미술의 중심적 단면의 강 역할을 해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달하산 전경에

진달래와 나

백기홍 <인문대 철학과 교수>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말 속에 배어있는 세계관을 두고 말한다면, 이것을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언어이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데, 이 세계관은 그들의 역사적 삶 속에서 공존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령 누군가가 인디언들의 세계관을 모로코도의 세계관 보다 열등하다고 말한다면, 말하는 사람 자신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어둡다든 밝다든 자연과 인간의 통일성 내지 조화를 주축으로 삼는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낱말로 '나'를 들 수 있다. 이 낱말은 그 앞에 다른 말들이 붙어 매우 다양한 함의성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잘났어', '못났어', '열등하다', '열등하다', '열등하다', '열등하다', '열등하다' 등 이런 함의어들은 대개의 경우 일부분의 명사가 '나'의 주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한 문장에서 쓰면, '누가 잘났거나 실패했거나 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전혀 주체라고 해야 옳다.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존재론적) 주체일까. 두 경우를 합쳐서 잘 생각해 보면, 대답은 곧 자연이다. 자연이 진정한 주체이다. 나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그것을 통해 자연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내가 신난다면, 자연이 지금 내 속에서 신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 마치 봄을 맞아 진달래 꽃이 피어나듯이,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무언가 넉넉함을 느끼게 한다. 꽃이 피는 것만 자연이 아니라 꽃이 지는 것도 똑같은 자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달관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들게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의 풍상을 겪어보면 누구에게나 절로 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민초(民草)들도 수 천년 역사의 질곡 속에서 그토록 끈질기게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우리 민족에게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무성해지는 잡초가 있는 한 절망이란 없었던 게 아닐까. 잡초를 뜯어먹고 잡초 같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게 된 민초들이냐 말다.

우리의 민족혼이라 할 이런 세계관이 근대화의 가센 풍우에 자칫 뿌리째 뽑힐까 두려운 심정이다. 자연을 초자연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세계관, 인간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이성적 존재로 보는 인간관, 자연을 인간의 합리적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물리학적 자연관, 이것들은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어느 한 이념의 세계관에서, 이런 세계관에서는 현세에서의 발판은 황금색이다. 왜냐하면, 자연과의 푸근한 유대 대신 초자연과의 종발적인 관계가 그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교이나 규범 등에 의해 단절되거나 왜곡되는 일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재앙을 초래할 자연과의 이음 세심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주위에서 이런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매아리

인본주의에 입각한 불교 입문서 원시경전의 정확한 인용 특이

이 책은 보통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쉽게 쓰여진 불교입문서이다. 저자는 월풀라 라후라(Walpola Sri Rahula)로 스리랑카의 승려이며 부처님말씀을 사실에 가장 가깝게 전하고 있다고 알려진 팔리어 경전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재에 관해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간명하게, 정확하게 믿음직한 설명을 하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의 얘기처럼 이 책은 사성계, 팔정도, 오온, 업, 윤회, 십이연기, 무아, 사념처등의 교의들에 관해 낯선 표현을 피하고 각 8장마다 수준을 차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쉽고 재미있게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의 아함(阿含)과, 팔리어의 부집(部集)이

거의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직설적인 표현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다른 책들보다는 달리 사회주의, 무신론, 실존주의 등 현대세계의 여러 사상적 조류들과 불교교리를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독자들에게 적용과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각 장마다 작은 제목들을 삽입하고 지면에 여백을 많이 띄워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번역자 진철승씨가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은 불교 모든 종파가 공통으로 신앙하고 있는 교리에 대하여 요약적인 설명을 해내고 있음을 보게 한다. 한편 이 책은 지난 88년 초판 1쇄를 발행했는데 완역되기 이전부터 국내에 이미 부분번역되어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져 있던 것으로 기본 교재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책은 지난 88년 초판 1쇄를 발행했는데 완역되기 이전부터 국내에 이미 부분번역되어 학생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져 있던 것으로 기본 교재로도 이용되고 있다.

본사 문화부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진솔한 삶이 담겨진 수필·시·풍토 등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260-3491~2, (0561)770-2057

祝

東大新聞 創刊 43周年을 祝賀합니다

東國의 무궁한 發展을 眞心으로 祝願합니다

漢林海運株式會社

漢林專用船株式會社
株式會社 漢林마린서비스
永興漁船株式會社

代表理事 南相乾

영어회화

- 기초부터 고급(1~6단계) 4주간 8주 완성
- 1일 2시간 / 주 5일 수업
- Level test 후 12명 정원제 (선착순등록)
- 첨단 Audio-Visual 교육시설

TOEFL 종합과정 1일 4시간
미국인문작성 1일 2시간
Business Writing 1일 2시간
통역대학원입시반 1일 4시간

코리아헤럴드어학연수원

문의: 753-9155 (직) 756-7711 (교) 483
4호선 명동역 북계로 코리아헤럴드빌딩 9층

The Korea Herald 직영

외국어강좌

英語·日語

개강 매월 초

코리아헤럴드사 TIME 아카데미 TOEFL VOCA 22,000 선문종합영어 원어실력기초 AFKN TOEIC L C / TOEFL L C 및 미국어 Hearing 생활영어회화 생활영어회화/일본어교본/일본어 말법인용회화 미국인용회화 있다. 통역대학원입시반 일어·영어·중국어·관공통역기초도 영어

외국어 공부 합시다!
코리아헤럴드학원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을지서적점 757-0419-0420

프랑스어

5~6월 학기수강등록
• 개강: 93. 5. 3(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일 리 앙스 프랑 세 즈

- initiation, mauger I, II, BEF I, • bonne route I, II, NSF I, II, • BEF II, ARC I, AP I, II, espaces II, • échanges II, NSF III, SFP, TRADUCT., • questions internationales, • expression écrite, antenne 2, • 각 과정 특성 속성반, DOSSIERS반 • conversation libre. 시사·미디어반.

sé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é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GU: 255-4630 DAE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韓國文化財團

변리사 강좌

1. 1993. 5. 1일부터 강의(2개월)
2. 과목: 특허법 상표법 의정법
3. 강사진: 이수용, 이인중, 이우권 등
4. 교재: 이수용 저. 특허법·상표법·의정법
5. 장소: 한국공민소유권법학연구원 서울 강남구 선릉역 역삼역출발 중간 (특허청 뒤편 쪽)
6. 전화: 552-0534 561-9087
7. 회원제 실시 (일일회원·특별회원)

그가 시인 이문재와 만나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레코딩에서 만나십시오

학생자치기구 1/4분기 감사

서울 총학·학복위 시작으로 5월6일까지 경주 결과발표 — 전시용 사업작품 지적

제25대 총대의원회(의장=정주영·야간부역4)는 1/4분기 정기감사를 오는 23일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전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총대의원회는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각 학생자치기구에 통보했다.

이번 1/4분기 감사의 내용은 △방중사업 △입장사업 △출발식 사업 △각 부서별 사업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또한 출발식 사업과 각 부서별 사업은 기획, 총무, 문예, 선전 분야로 나누어 감사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일 현재 감사자료를 제출한 곳은 총학생회 한 곳 뿐이어서 총학생회 이외의 모든 자치기구가 감사특위의 경고대상이 되고있다.

감사일정은 총학생회, 학생복

지위위원회 23일을 시작으로 28일 불교대, 농과대, 야간강과, 29일 사회과학대, 공과대, 학원 자주부총장위원회, 교육과정 학생위원회, 30일 문과대, 이과대, 예술대 등으로 예정돼 있으며 법과대는 오는 5월3일, 사범대는 오는 5월6일로 잡혀있다.

경주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이종섭·야간부역4)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1/4분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종섭의장은 결과 발표를 통해 "각 자치기구의 일부 영수증 조작과 손실액을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감사 회피수단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과거와 다름없이 발견되었으며,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 나타난 사업들이 예년과 다름없는 전시용 사업만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역력하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개

끗해야 할 대학의 감사가 기성세대의 감사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안타깝고, 감사결과는 반드시 학우들에게 알려 학우들이 평가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회는 감사보류신청을 해온 한의대 학생회와 시립교직원집합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의대 학생회는 28일 자료제출을 받아 30일 감사기로 했으며, 시립교직원집합위원회의

감사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졸업준비위원회는 사업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아 2/4분기에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으며, 회계장부와 전산실에서 작오와 부조리가 발견돼 회계의 재감사 요청으로 19일 재감사를 실시한 동아리 모두모듬은 1차 감사결과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혜불만행 청와대 공개서한 보내 공개해명·편파적 종교정책 시정요청

제25대 불교대학생회(회장=김창모·불교4)는 육군 17사단 전차대대 법당폐쇄 및 혜불만행과 관련해 지난 14일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교대 학생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공개해명 △군내에 단연해 있는 편파적 종교정책 즉각시정 △17사단 전차대대 법당폐쇄 및 혜불만행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조계사 청년회 사무실에서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맹, 불교 불교도 연합등은 17사단 혜불만행 청년불교대 대책위원회(위원장=배영진 대학불교청년회 회장)를 결성했다.

육군 17사단 혜불만행 청년불교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조계사에서 청년불교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규탄대회에는 불교 불교도 연합 소속 학생 50여명도 1천여 명이 참가해 17사단 혜불만행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청년불교도 대책위원회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17사단장 관원 △국방부장관 측 각 사퇴 △김영삼 대통령의 불교관계 공약 즉각 이행 △중단 지도층의 대오각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군내 무차별한 불교탄압을 규탄하며, 김영삼 정부의 형평성있는 종교정책을 촉구했다.

청년불교도 대책위원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대통령의 공개사과가

총대 정기총회 무산 사전 준비 부족

제25대 총대의원회(의장=정주영·야간부역4) 정기총회가 교양학교 개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난 15일 다함관(2층 보리수)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정기총회에 전체대의원 2백10명중 78명만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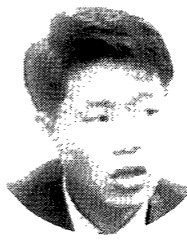
정기총회 무산과 관련해 정주영 총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 간부들의 타성에 빠진 모습때문에 무산된것 같다"고 지적하고 "각 단위 교양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정관(철4) 문과대 대의원회 의장은 총대의원회의 사전 준비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총대의원회 정기총회 자료집인 '합성'이 행사 하루전인 14일 나와 각 단위 대의원들에 대한 총대의원회의 불성실행이 지적되기도 했다.

외고고시수석합격자 향남기동문을 만나

외시 준비생 위한 여건 조성돼야



태하게 됐다. 처음 외고고시를 시작한 때

=90년11월에 공부를 시작했다. 그다음해인 91년2월에 1차 합격을 했고 92년3월에 2차합격을 했으나 4월에 있었던 면접에서 떨어졌다.

시험준비 기간중 학교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타학교의 경우 2차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 지급은 물론 면접정보 등 많은 정보를 주고하는데 우리학교의 고시 정책이 문제가 있는것 같다.

본교의 고시정책의 문제점이라면

크게 도서관의 문제점과 고시학사의 문제점 2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도서관의 문제점이라면

고시에 관련된 정기간행물의 관리가 소홀하다. 몇달이 지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책이 있다. 또 1권씩밖에 구축을 안해 제본과정에 들어가면 대출받을 수 없는 불만이 있다.

고시학사의 문제점은

행정의 공개가 가장 필요하다. 어떻게 방 배정이 되고 어떤식으로 장학금이 배분되는지 궁금하다. 또 고시학사의 시준비는 사법고시 위주로 되어 있어 외고고시 준비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의 극복방안은

학교내외 외고고시 연구실을 만들고 외고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고고시 지도교수를 선정해 외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지마오로 고시를 준비하는 본교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말은

고시공부를 하더라도 학교로 인한 열등감을 갖는다.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타대학의 학생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자기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석종 기자)

경주총학 비상전체회의 소집 부총장 문제 대응책 논의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정순현·경영4)는 오늘(21일) 오후 5시 여학생휴게실에서 각 단대장 및 자치기구장, 각 학과 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비상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부총장문제의 이후 대응책은 이와 각 단위 제반문제확인이 주요안건으로 선정, 논의될 것인 임시회의는 지난 3월31일 경주교수회와 민병천총장과의 면담이후 경주교수회의 가시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전체학생조직차원의 모임이란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29일 총학 및

각 단대학생회 간부로 구성된 '학생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실시한 '민주부총장총합'을 위한 범 동국인 서명운동이 현재 약 5천여명 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승준(경제4)은 이번 서명운동의 의의를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변화의 의지발현"이라 규정하며 "민주부총장총합은 경주총학 자율성 확보와 독자성을 이끌어 초석이 될 단발적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탄대회에는 불교 불교도 연합 소속 학생 50여명도 1천여 명이 참가해 17사단 혜불만행을

도서관 발전계획 마련 공청회 복지시설 확충·정보센터 역할 필요

도서관 장·단기발전계획마련과 문제점 진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20일 오후2시 총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관리처장, 학생처장, 도서관장과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관원기사 5면)

이날 공청회는 △93년 해결해야 할 도서관문제점과 극복방안 △장기계획기조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대표인 부총학생회장 이상호(야간부역4)군은 헌 도서관의 문제점 △조명등 복지사항 △학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에 맞는 기능 △예산확보 및 책정 등을 지적했다.

또한 김보환(경원행정학) 도서관장은 현재 과제에 △공간부족해결 △도서관의 △공간활용도 증대 △전산화 등을 꼽으며 "장·단기적인 사업을 구분, 진행중에 있으며 학교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더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차시설장의 참석과 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이날 공청회에서 학교당국은 단기적 사업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장기계획의 구체적 방향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주최측인 총학

제6기 서총련 출범식 열려 자주학원 건설·통일운동 대중화 결의

제6기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의장=김기현·중앙대총학생회장 이하 서총련) 출범식이 중앙대

에서 본교생 4백여명등 서총련 소속 학생1만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16일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 서총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살아가며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부름앞에 한치의 부끄럼 없이

당당했던 서울지역 40만 청춘은 미국과 김영삼 정권의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과 6공2기정부의 허구적, 기만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하는 지금 혁신의 결의와 전진의 기치들고 구국의 깃발 제6기 서총련의 출범을 창년의 패기로 선포한다"라고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제 주체들과의 단결을 통해 교육개혁 투쟁을 완강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안을 정리해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총련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의 허상을 직시하고 4천만 민중의 민생권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모인 서총련 소속 학생들은 △교육개혁 투쟁을 통한 자주학원 건설 △부패, 불법행위를 막는 금융실명제 실시 △민주행정절정 개정 △우호 미군 철수 △자주통일투쟁의 대중화를 통한 민족의 앞날개척 △서총련 강화를 통한 한총련 건설의 모범으로 설정 등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의장은 "학원이 기업화되고 취업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을 사랑하며 청년학생을 개별화·파편화시키는 계급주의 사상이 학원에 침투하는 것을 반대하는 40만 청년학도는 학내

백년지대죄

○... 최근 백년지대죄라는 교육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엄

경년대 부정입사사건 이후 연이어 계속되는 파문과 의혹들만 해도 교육계 체면이 이만저만 아닌데 교사, 교수님들까지 나서 파문때문에 자식사랑 때문에 라는 이유로 앞장서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문제. 어

이없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은 정

의 참여도가 낮아 이름뿐인 운동이 될까봐 걱정된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팔건어부치고 해보자구요

김건진 불구경이 문제

백년지대죄

○... 텔레비전을 켜면 자주 볼 수 있는 불거절약운동이 본

광동에 켜져있어도 직접 불을 끄는 학우는 볼 수가 없어.

쓰레기분리수거와 커피잔모으기운동도 학우들

의 참여도가 낮아 이름뿐인 운동이 될까봐 걱정된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팔건어부치고 해보자구요

김건진 불구경이 문제

백년지대죄

○... 해외 불법 체류자 위장

들이 모아놓고 강의하고 있는 총격적인 소식을 접한 회전무대자 알아보니.

의사국기시험 1백%의 합격률을 보이며 동국의 건강함을 과시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식당을 찾을 수 없

오 학생회관 식당으로 걸어들어

의 참여도가 낮아 이름뿐인 운동이 될까봐 걱정된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팔건어부치고 해보자구요

김건진 불구경이 문제

백년지대죄

○... 소말리아에 구호물자를

들이 모아놓고 강의하고 있는 총격적인 소식을 접한 회전무대자 알아보니.

의사국기시험 1백%의 합격률을 보이며 동국의 건강함을 과시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식당을 찾을 수 없

오 학생회관 식당으로 걸어들어

의 참여도가 낮아 이름뿐인 운동이 될까봐 걱정된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팔건어부치고 해보자구요

김건진 불구경이 문제

카미유 클로델
그녀는 스무살에 로댕의 연인이 되었다.

카미유 클로델 1864-1933
로댕의 연인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일생을 표현하는 "천재적인 영감과 창조적 열정의 작품세계를 넘겨주었다. 로댕의 그늘에 가려져 사후 41년만인 1983년에 새롭게 평가받았다. 「서문」, 「성숙기」, 「로댕」 등의 대표작이 있다.

아름디움이 있는 대학생들 - 이도레 순정과 함께 하세요
순정은 전국 17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순정 스킨스프린트.....10,800원
●순정 트윈케어크.....10,800원

태평양

◇ 4.19 당시 부상당한 김반우 동문을 찾아

진실과 참됨은 결코 죽지 않기에...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온 33년이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4월 19일 이맘때면 흐드러지게 피는 진달래 만발이나 짙은 핏빛 울영으로 머무는 4월혁명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 올 것인가.

32년전 이날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해 이땅의 민주화와 민중이 주도 하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증명해 내며 뜨거운 젊은 피를 민주주의 제단에 바친 이들을 기억한다.

그들의 숭고했던 혁명정신은 5·16 군사 쿠데타와 군부독재의 뒤안길에 가려진 절곡의 세월을 거쳐 다시금 평가 받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이제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 인아 야 할 4.19, 그리고 역류하던 그 시절을 지켜왔던 동경과 60학년 김반우(53세)선배.

성동공고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신입생들에게 학교지리도 채 익히기 전에 다가온 것은 씩씩대로 색은 독재에 저항하는 사회분위기가 었.

김반우와 역사가 영결한 기역월 그 날 60년 4월 19일.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독재정권 타도를 결의하는 성토 대회후 이승만을 만나러 가자며 경 무대로 지금의 후문을 박치고 나선 2 천여명의 본교생 중에는 신입생 김선 배가 있었다.

끝까지 질서를 지키며 학생시위대의 선두에선 본교학생들은 경무대 앞에서 경찰이 난사해 내는 최루탄에도 대열을 흐트러지 않고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그리고 갑자기 잠잠해진 경찰병력, 이어지던 공부는 듯한 기관총소리. “그것이 효자동 진차종점 바로 앞 이었지. 총탄에 필집이 되어서는 진 차안에서 숨어 있으면서 오만가지 생 각이 떠오르더군” 휠체어에 앉아 담 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가던 김선배의 눈매가 순간 어두워지고 있었다.

“복수를 부지해야겠다는 생각보단 내가 왜 이자리에 있을까” 이대통령을 만난던 어떻게 말을 할까? ‘오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 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지” 여 기까지 말을 마친 김선배의 표정은 기억해내기조차 힘든 그때의 일들을 꺼내 놓고야 말았다는 냉랭함이 번 지고 있었다.

그렇게 전차에서 뛰어나오다 등 뒤 철추를 관통한 총상으로 실려간 듯이 경복궁을 수도유근병원.

그가 깨어난 것은 한달 뒤였고 두 동료열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경추중추신경 불완전마비로 13년 6개월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김선배도 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번 통원치 료를 받는다.



◇ 김반우동문은 4.19 시위당시 경찰들이 쏜 총탄에 등 뒤 철추 관통상을 입고 허반신 불수의 몸으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살아오고 있다.

로 이외에는 변변한 외출조차 쉽지 않은 ‘영어의 볼’이다.

지금의 아내와는 지난 72년 입원하고 있던 보훈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원의 관계로 이루어진 만남이다.

독실한 천주교인인 아내는 선배의 평생 영원한 반려자로 남아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인 슬하에 하나 밖에 없는 ‘여식’ 세현이는 어리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김선배의 가장 큰 희망이다.

“너무나 피로워서 삶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몇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명예졸업을 도와주신 주종환 교수와 여러 은사님, 동료들을 떠올리고 아직도 나는 동국대학교 학생이란 생각을 가지며 극복해 내려고 했지”

후회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처음으로 웃으며 대답하는 김선배는 다시,

“그 당시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용솨우치는 감정과 진실되고 참된 것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뿐이었고 지 금도 변치 않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 을 이었다.”

4.19정신은 온 국민이 결코 잊어선 안될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것이 계승 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듯 말하는 김선배의 잘 움직이지 않는 몸짓과 주먹은 불의에 저항했던 4.19혁명과 민족의 투혼이 역사의 흐름속에서 다시 울바로 서 꺼지지 않는 피의 교훈 으로 영원히 기억돼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현 정부가 민주화를 갈망하던 4.19에대의 참된 뜻을 올바르게 알고 앞으로 숨겨진 진실과 혁명정신을 계승 해야 할거야”

현재 4.19자서로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 김선배는 김영삼 새정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좋은 것이라 판단되면 늘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길 바란다면 후배 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말하는 김선배의 말 속에서 불의에 대항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해 불바진 앞서간 선열들의 기고한 4.19혁명정신을 찾을 수 있었다.

<이재관 기자>

경주국어국문학과 동국문학회 공동주최 4·19기념 새내기 백일장 당선작

문예부 수상

호수

호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러나 늘 꿈을 꾸다.

꿈속에서 호수는 나를 안다. 물빛을 담은 수면위를 내려다보면서, 슬픔을 토로하는 나를 알고

깊숙히 찬 무연의 위안을 내게 던져준다. 자기처럼 살라는듯,

호수는 가진 것 없어도 누군가 자기를 찾아와 오직 보고 가기만 하여도 만족하는 가슴속 풍요로움을 그 투명함에 묻어내게 하며 산다.

꿈속에서 호수는 나를 안다. 이제는, 그 물빛을 담은 수면위로 내 기쁨을 내보이면 나를 알고 넓디넓은 무연의 너그러움을

내게 던져준다. 늘 그렇게 살라는듯,

누군가의 기쁨을 그 차오른 물속에 감추어 또다른 슬픔으로 아파할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꿈속의 호수를 안다. 나는 그리고 늘 꿈을 꾸다. 호수의 꿈 을

이 승 윤 <인문대 국문과>

신문부 수상

다리를 지을거다

가 시집은 색다른 뜻을 담은 새내기 이름으로 난 동국인이 되었다. 교분이 더 넓었다. 총재가 많았다. 그곳에 가기 위한 과정인가 곳곳에 걸린 현수막, 책과 옷을 입은 지저분 한 대자보들. 험난한 하저면 언덕지 모를 목사의 힘이 흐르는 이곳 ‘내과’와 연결 지지 않은 나의 생은 한편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라고 당돌히 도 도하게 이곳을 갈망했던 짧은 단발머 리의 내 고교친구는 저금줄 이곳의 흥에 한껏 취해 있었을까? 지성으로의 발돋움인가. 무엇인가를 분명 지향하 고 목적 있는 추구임엔 틀림없지만 어떤지 끄덕이지 않고 45° 틀린 방 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이 그들을 미웃는 건 아닐지.

고교시절 그들은 내 습자에 대해 근사보다 노동자란 말을 쓰라렸했 지. 윤리선생님은 어딘가에 큰소리로 노 갈구하는 게 있을수록 내게 항상 시 사하였다. 미연하게 난 캄캄한 건설 하는 노동자, 진보적 목소리로 민중 이 주인공인 세상은 노래하는 학생만 동을 기쁨의 눈으로 쳐다 보게 되었 지.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노 래를 들었다. 나도 그들처럼 어두운 자원에서 성장처럼 빛을 비추는 일 실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었다. 그 래서 난 대학의 지성인이 되려 이 곳

에 왔다. 뭐랄까 흥청거려다 해야할 지 국민학생 크레파스처럼 경망스런 섹의 모습들이다. 교정을 줄지은 입을 딱 벌린 동아리 연합회의 ‘날 찾아가시오’의 소리들. 제3교정의 연 구방법을 강의하는지 정치학 교수님 의 마미크 복소된 딱딱한 지식이란 이름으로 내게 다가왔다. 여는 듯 단 련 맘을 가지고 다가서는 학우들...

과연 난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 가 야 할까? 불음표만으로 남겨두기엔 난 너무 젊고, 많은 여린 감정을 지 냈고, 여기저기서 활달성을 지녔다.

“신한국 창조적 역동적 발전을 다 경하는 문인 정부를 찬양하고 염세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생선을 파는 아줌 마의 미역처럼 싱싱한 생활력을 사랑 하는 대학생이 되자.”란 결론을 얻었 지. ‘역량’이란 것은 해어진 넓은 운 동화와 불확정적 변화와 깊은 냉세의 통찰력과 찬 파진기 너무 잘 어울려 는들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피보다 진한 출산을 나누며 그곳에서 조형의 무성되어 가는 건설의 힘. 거기서 단 결한 건설의 힘. 그것으로 나는 내 사육사에 다리를 건설하고자했다. 국 어보다 중요시 되던 영어수업에 임하면 서 수학공식을 외우며 야간 자율학습 으로 하루를 다 색칠하고 지냈던 대

학이란 곳에서 내가 할 일이다. 유난 히 무서움이 많은 나. 불구자를 보면 구릿빛 엄마 치마자락에 몸을 숨기어 버리고 파르르 떨었다는 내 어릴적 모습. 고아원, 재활원, 양로원의 이 야기를 쓴 글을 읽으며 눈물 짓던 울 엄.

그런 나도 지금은 헬기 짙은 희망 을 갖고 나란 다른 세계에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싶다. 팬티선 까지 쭉 뻗어온 스커트와 전통적 내 팔 여인을 연상시키는 빨간 둥근 모 자의 최신 유행스타일이 없어도, 막 걸리와 대충서적과 지극히 정돈된 맑 은 대학의 지성만으로도 세상은 빛을 수 있도록, 지극히 버리고 싶던 내 속의 깊은 모습들, 칙칙한 수녀복속 의 그 맑은 감성으로 막연한 죄의식, 청빈으로 황홀히 신음하던 해인들, 그녀의 글을 사랑하던 내 모습까지도 이제 새 눈을 띄우는 불처럼 다시 깨 어야 한다. 참새상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좋다. 민중의 몸이 어 디서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나서지 않 으리라. 그저, 난 이곳에서 건설 수 있도록 막연한, 하지만 너무 뚜렷한 그곳에 이르는 다리를 지을 거다.

김 덕 실 <인문대 중문과>

수지침술을 배워 보세요

본 여학생부처장실에서 개설한 특 강 중 수지침 강좌는 수지침 전문가 를 초빙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듣고 시술법을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대상은 본교 남·여학생으 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 2년 짝 연속해서 매학기마다 개설되고 있 다. 현재는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되어 오던 수지침이 체험을 통해 효력을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반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각 단에서 수지침 특강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수지침은 가정에서 손에 만 자극을 주어 전신(全身)의 질병을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고 간단한 증 상일 경우 그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 공부하는 학생 자신 뿐 아니라 가족

들의 건강·유지에 유효한 치료법이라 는 측면에서 배우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보다 병명이 다양해지고 병내내 환자가 인 산인해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간편 한 치료법으로 고칠 수 있다면 이보 다 경제적인 가정요법은 없다는 점에 서 본 강좌 개설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본 강좌에서는 수지침의 초보단계 로 압봉(壓封)을 이용해 학생자신이 임상대상이 되어 인체 각 부위에 상 응하는 손바닥의 기맥을 찾아 부작하 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기맥을 찾는 방법과 그 상응 부위의 명혈이 어디 있는지등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 다. 압봉의 효과를 간략히 말한다면

첫째, 환자에게 고통을 적게 주면서 압박하기 때문에 지압 효과가 있고 둘째,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이온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압봉을 붙이면 약한 통증이 있어서 침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압봉을 이용하는 초급단계로 거쳐 어느정도 익숙해지 면 직접 수지침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고급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같이 가정의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수지침을 보급의 일환으로 본 부처에서 개설한 강좌가 본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나아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특 강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여학생 부처장실>

문 학 단 신

강 습 회

◇수화 배틀-농아들을 위한 모 입 마음에서 마련한 수화를 배 울 수 있는 소중한 자리. 매주 화요일 북요일 오후 5시. 경주캠퍼스 정각원.

패왕리

▲ 언 론이여, 자기 각 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언론의 자유 라는 말이 불필요할까? 느끼게 되 는 연유는 무엇인가. 권력의 통제에 권력이 동요하지 않는 주장이 무 의미하게 된 우리의 언론과 언론인들 이여, 다시 깨어날 새로운 태동이 준 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내 어준 권한이 기만되어 악용되는 이 시대 언론에게 언제까지나 자정과 도 덕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얼마나 허 무하게 느껴지는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현대인들에게 언론의 건강성을 위한 자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지난 1947년 3월 27일은 제4부과 일컬어 지며 최고의 권한을 쥐던 미국사회 언론에게 있어 ‘책임’의 의미를 일깨 워 준 날이었다. 이 날은 미국의 대 표적 지식인들이 모인 하친스워워회

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던 날이다. 이 보고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언론이 무책임한 태도에 있어, 공중의 이익 을 무시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 다. 이 비판은 미국인들에게 자정 을 촉구했고 언론의 맹목적 신념에 젖어있던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충격

언론의 자정

이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바라보면서 47년 미국의 언론자정에 대한 촉구처럼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언론의 역사는 권력에 의한 끊임없는 통제와 억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론’의 의미조차 정권과의 평화속에서 유지해 왔고 국민위에 군 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에는 권력뿐만이 아니라 자본의 통제 속에 한국언론은 간혀있다. 계속되는

증언과 전언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광고들, 오히려 광고에 기사가 추가 되는 주객전도의 지면을 만들어 내 고 있다. 끊임없는 파다정쟁속에 더 높은 광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들 언론자본가들에게 이미 정론이나 공익의 의미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최근 일부에서 이런 인 문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서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ABC의 발행 부수 공개요구라던지 언론중재위원 회의 발족등은 국민들의 눈으로 언 론을 감시하겠다는 자정추구의 노 력들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런 움직임에 조금도 자정의 의지를 표하지 않고 있다. 마치 그들의 구민 총치 의 역사를 대변하듯, 이제 전 권력 이 나서야 한다. 언론은 소수 권력 과 자본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水>

동국대학교 개교 87주년 기념
동대신문 창간 43주년 기념

제31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 모집

본 대학교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학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문학의 새싹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31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입상자에게는 본교 입학후 장학금 지급의 혜택이 부여되오니 가장 권위있고 전통있는 이 향연에 전국 고교 문학도들이 많이 참가하여 영광을 얻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종류
(가) 시·시조 2~3편
(나) 소설 1편(200자 원고지 5매 내외)
(다) 수필 1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응모·심사절차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고교생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예선(원고심사)에서 입선자를 뽑아 개별 통지하고, 5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본교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케 하여 최종 입상자를 결정한다.

시 상
(가) 각 종목별로 정원 1편, 우수작 2편, 가장 2~3편을 시상함.
(나) 1차 예선 입상자에게도 상장을 수여함.

장학금 지급
(가) 각 종목별로 정원입상자가 본교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나)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가 본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수업료 반액을 면제함.
(다) 계획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을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가) 응모 작품에는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주소, 전화 등을 반드시 쓸 것.
(나) 응모 작품 결봉에는 (고교생 문학콩쿠르 작품계중)이라고 쓸 것.

작품제출기간
1993년 4월 28일~5월 4일

작품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우편번호 100-715)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귀중